

순천 향동마중물보장협의체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시작

독거노인취약가구 대상 가스 안전타이머 설치 사업 시작

내달 말까지 85가구 설치...향후 유대관계 지속 맺을 예정

순천시 향동마중물보장협의체(회장 박쌍호)가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스 안전타이머 설치 사업을 시작했다.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는 독거노인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주택에 가스 안전타이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내업체가 50% 할인된 가격으로 가스타이머를 공급해주고, 마중물보장협의체와 복지기동대가 개별가구에 맞춤 가스 안전타이머를 설치하는 지역 내 인·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순천시 주민자

치형 공공서비스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7월말까지 독거어르신 85가구에 가스안전 타이머를 설치한 후, 향후 말벗 및 안부살피기 서비스 등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 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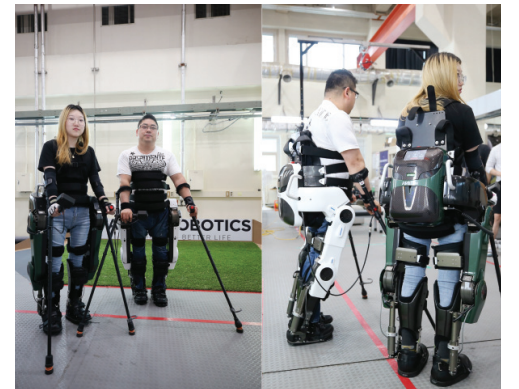
김정숙 향동장은 “향동은 타지역에 비해 독거노인가구 비율이 높고, 좁은 골목과 낡은 주거형태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며 “홀몸어르신가구에 맞춤형으로 설치가 되는 가스타이머 사업을 시작으로 생활안전점검, 주거개선사업 연계 등 독거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동 마중물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랑의 생김치 독사업’, 가가호호 지킴이 등을 운

영,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김병욱씨(46)와 이주현씨(19·여)가 워크온슈트4 착용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KAIST 제공)

KAIST, 하반기 마비 장애인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 공개

KAIST(총장 신성철)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 연구팀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나동욱 교수와 공동 개발한 하반기 마비 장애인의 보행 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슈트 4’를 15일 공개했다.

KAIST에 따르면 워크온슈트4는 두 다리를 감싸는 외골격형 로봇으로 모터를 이용한 힘으로 하반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움직임을 보조할 수 있다.

일어나 걷는 등의 기본적인 동작은 물론 계단·오르막/내리막·옆경사·문 열기·힘지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사용자 신체 각 부위에 정밀하게 밀착되는 착용부를 만든 뒤 로봇 관절의 기준 위치를 조절해 무게중심을 정밀하게 맞췄다.

또 착용자의 건강 정도나 지면의 상태와 같은 외부 요인을 지능적으로 관측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더했다. 워크온슈트 4는 로봇이 착용자의 걸음을 30보 이내로 분석해 가장 적합한 보행패턴을 찾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 마비 장애인들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장시간 걸거나 살 수 있도록 월등하게 기능을 끌어올렸고 연속보행 시 1분당 40m 이상을 걸을 수 있게 된 성과를 거뒀다.

연구팀은 활발한 기술협력을 통해 일부 부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요소를 국산 기술로 완성했다. 로봇의 구조설계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공경철·나동욱 교수가 공동 창업한 ㈜엔젤로보틱스에서 주도했다.



강진 마량면적십자회, 홀몸어르신 가구 봉사활동

회원 10명 목욕·집안 청소 등

지난 12일 강진군 마량면적십자회(회장 광미은) 회원 10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홀로 지내는 어르신의 가구를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마량면 1구 마을 김 모 어르신 가정을 방문한 회원들은 가재도구와 집안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옷가지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목욕 봉사를 실시했다.

광미은 마량면적십자회장은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서 어르신이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

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는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강한성 마량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늘 자기 일처럼 한걸음에 달려와 주는 마량면적십자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적극 협력해 행복한 마량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량면적십자회는 깨끗한 마량만들기를 위해 해마다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환경정비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광주 서구치매안심센터-화정1동 새마을금고 치매극복 선도단체 협약식 개최

경로당 대상 치매예방교육 운영

광주 서구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2일 화정1동 새마을문고(회장 김옥자)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사업은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지역사회 주체로 동참시켜 치매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된 회원들은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예방 및 관리법 실천, 치매 인식개선 홍보,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 등 단체의 인프라와 재능기부를 통해 치매극복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화정1동 새마을문고 전 회원은 치매파트너로 참여기로 했다.

화정1동 새마을문고는 앞으로 지역 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 운영해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치매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예정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매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파트너를 양성해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선도단체와 함께 지역주민의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